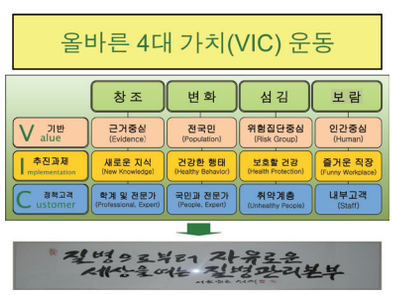
질병관리본부소식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News Letter
2008년 12월호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비전선포식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27일에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4대 가치를 선포하는 기념식을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기관의 4대 가치를 선포하는 직원 선서가 있었고 우수 직원 표창 등의 시간을 가졌다.





'섬김, 변화, 창조, 보람' 이라는 '올바름을 추구하는 4대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치관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 가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과 조직관리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4대 가치는 WHO 6대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 종욱 박사의 3 RIGHT 에서 출발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신은 우리 조직이 하는 일은 올바른 것이라는 명제이다.

질병관리본부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의로운 마음의 '섬김'과 건강 위해요인을 가진 다수의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의 추구,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각종 조사 결과나 논문은 해당분야 권위자로써 정확성과 새로운 가치를 위한 '창조' 행위이며, 상호 신뢰와 업무에 대한 긍지, 재미가 있는 직장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것이 올바름을 추구하는 4대 가치이다.

평소 올바름을 추구하는 4대 가치에 대한 소신과 이러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 등을 총무혁신팀, 유전체역학팀, 생물안전평가팀, 연구지원팀 등의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 차

01 우리는 지금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

03 홍보 대사 위촉식
산악인 엄 홍길씨

04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AI · PI대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토론회
2008년 생물테러 대비 국제 전문가 회의

06 팀소개
총무혁신팀

08 여기는 검역소
국립김해검역소

10 제21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함께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11 국제행사
서태평양지역 B형간염관리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12 주요행사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cob Disease, 이하 CJD) 및 변종CJD 국제자문회의 개최
공수병 감시와 예방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본부 연구 성과 발표회 및 명예 연구원 초청 간담회
2008년 전염병관리 컨퍼런스 개최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medethic@cdc.go.kr





기념사에서 이 종구 본부장은 지난 일년 동안 성과 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한 질병관리본부의 비전 수립에 대해 회고하였다.

지난 해 질병관리본부는 *핵심역량*과 *전략*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결과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라는 슬로건의 탄생이었으며, 이를 가슴에도 새기고 돌에도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이 비전은 직원 모두가 함께 만든 것이었기에 이 비전에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비추어 볼 수 있는데, 2008년은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모든 일의 프로세스, 방향제시와 의사결정을 전 방향 소통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초기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물로서,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질병 정보' 제공, '월간 질병관리본부 뉴스레터' 발간, '주간 건강과 질병(PHWR)'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예방 · 조사 · 감시 · 연구 · 정책수립 등 질병관리본부 본연의 임무를 알리고,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조직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재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터의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Industry Architecture Innovation)을 만들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코호트 구축, 국민건강영양조사, 각종 서베이와 자원 은행, 국립보건의과학도서관, e-science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건 · 의학 분야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고, 연구자들에게 개인과 집단이 모두 상호협력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정책입안자 · 행정가에게는 과학적인 전문 지식을 서비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비롯한 국가규모의 거대 데이터를 만드는 일과 코호트 등의 결과를 실제적이고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장(場)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Great Work Place (GWP)운동을 위해, *조직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 훈련*을 중간 간부에게 실시한다.

홍보 대사 위촉식

김지영
총무혁신팀
esswa@mw.go.kr

산악인 엄 홍길씨



11월 14일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비전을 실현시키고 도전정신을 고취하며 이를 국민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 산악인 엄 홍길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날은 홍보대사인 엄 홍길씨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과 전직원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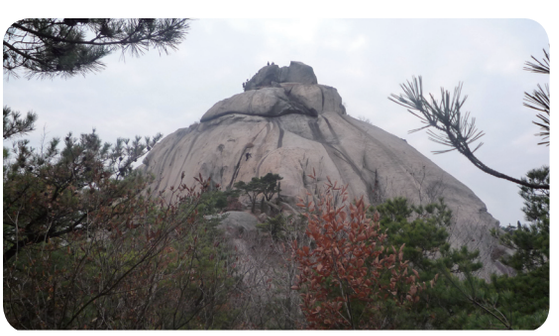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예방은 손 씻기로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후 목욕을 합시다!' 등의 홍보문구가 적힌 각종 홍보물과 손 소독제, 비누, 코인 티슈등의 홍보물품을 북한산을 오르는 등산객들과 약수터를 찾은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하는 발열성 질환 및 각종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엄 홍길씨는 대한민국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14좌 등정에 성공하여 한국인의 기상을 드높이고 국민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준 강한 도전정신의 산악인으로, 질병관리본부의 홍보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질병연구 및 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염원을 잘 표현하고 *긍정적인 기관 이미지*를 알리는데 일조하는 홍보대사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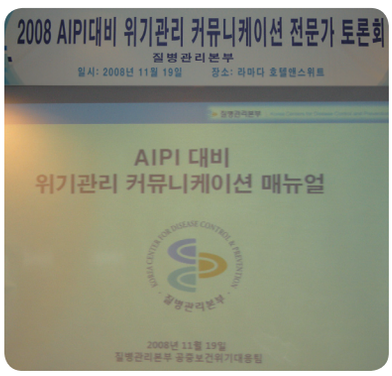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윤주
공중보건위기대응팀
lyj78@cdc.go.kr

AI · PI대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토론회



지난 11월 19일에는 AI · PI 발생시 효과적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정석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이윤주 선임연구원의 AI · PI 대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소개와 최윤형 교수(한양대 광고홍보학과)의 AI · PI 대비 위기관리 의사소통 전략 방안 그리고 신재원 의학담당 기자(MBC)의 '08 AI사례를 통한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응대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효과적인 위기관리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 개발 및 이를 통한 향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방향성을 개진해 보는 종합토론에서는 (조선대 최양호 교수, 중앙대 김 정현 교수, 한양대 최 윤형 교수, MBC 신 재원 의학담당 기자)위기 관리팀의 인력구성과 루머나 유언비어와 관련한 관리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며, 위기 단계별 위험요인이 명확히 명시된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대유행 발생시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사회 혼란 및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국내 정부기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의 기본 방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문가와 현직 언론사 기자가 해석하고 전하는 정부기관의 발표내용을 어떻게 홍보 하는가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이 계속되어 정부, 언론인, 전문가 집단 등이 함께 실질적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국정홍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를 모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과 같은 전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실제적이고 적절한 지침을 줄 수 있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단계별 전략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Avian Influenza(조류인플루엔자, 이하 AI)/Pandemic Influenza(신종인플루엔자, 이하 PI)

김정숙
생물테러대응팀
jskim1002@mw.go.kr

2008년 생물테러 대비 국제전문가 회의

최근 국제적인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팀)는 생물테러 대응 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2008년도 생물테러 대비 국제전문가 회의』를 11월 20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미국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 보건대학 Dr. William D. Stanhope 교수의 '2001년 탄저테러 및 미국의 생물테러 대응체계'와 이스라엘 텔 아비브 Sourasky 의료센터 Dr. Pinchas Halpern 교수의 '이스라엘의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국내 전문가로서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최대해 교수가 '생물테러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태세'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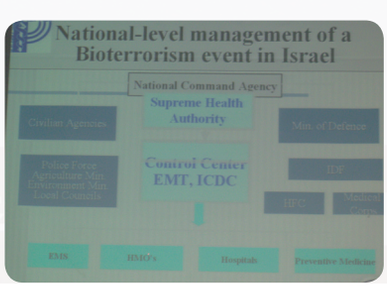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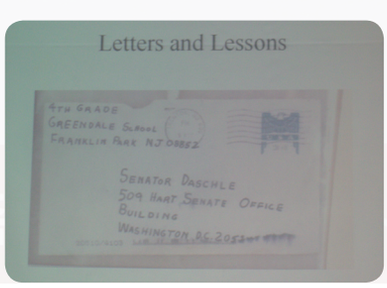




아울러 *'2008 바이오 탄저 테러 대비 모의훈련'*도 현장에서 실시되었으며, 모의훈련 후에는 전문가 강평과 대응관련 미비점 보완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서는 국내 · 외 전문가간 정보공유와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체계 강화, 의료인 및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2008년 생물테러 대비 국제전문가 회의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등 정부 생물테러 관계관 및 군 관계관, 시 · 도 생물테러 담당관 및 보건소장, 표본감시의료기관 생물테러 담당 의료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팀 소개

총무혁신팀

❖ 팀 구성 및 담당업무



총무혁신팀은 우리 본부 모든 부서들이 사업 및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 지원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효과적인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무계, 용도계, 예산계 그리고 정보화T/F로 구성되어 있다.

서무계는 인사, 교육, 조직관리, 직원 복무 및 근태관리, 성과관리, 각종 회의 및 행사 주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용도계는 구매요구 출급관리 및 시설관리업무, 오송 이전 관련 업무,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각종 용역계약 관리를 담당한다. 예산계는 예산편성, 집행, 결산업무 전반, 재정 성과관리를 통한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국회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각종 정보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실의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화T/F 가 있다.

❖ 2008년 주요사업

▷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GWP 연구 용역사업 추진

조직융화와 업무성과 향상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지난 8월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신뢰, 조직과 업무에 대한 자부심, 구성원 간의 동료애와 재미를 실현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직의 경쟁 우위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본부에서 실시한 동호회 활성화, 올바름을 추구하는 4대 핵심가치(VICTORY: 창조, 변화, 섬김, 보람) 운동, 각종 편의시설 설치 공사, 전 직원 등반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를 통해 가장 근무하기 좋은 직장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

▷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국민 지향의 성과중심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센터, 팀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팀별 추진과제의 상시적 점검과 사전 개선이 용이하게 되어 조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직원 참여를 바탕으로 전략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보상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운영한 성과관리시스템은 성과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성과지표를 수정 · 개선하여 2009년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 물품구매 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

2007년 말 물품구매 및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현황 파악으로 기본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박선화
총무혁신팀
parksh11@korea.kr

물품구매 관리 시스템을 정립하여 올해 운영한 결과, 물품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다. 올해에는 1차 개발사업으로 구축된 물품구매 관리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업무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립하여 각 사업부서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정보화T/F

정보화T/F팀은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총괄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을 총괄 · 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정보화 비전과 추진계획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정보화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총괄 ·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로서 현재 주요 추진업무는 아래와 같다.

❖ 정보 보안 업무

개인정보 보호 등 중요 정보통신 보안이 주 업무이며, 올해는 질병관리본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등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특히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및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실무업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 취급 및 관리 · 실무 교육 등을 통하여 보안의식 제고에 노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중점을 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 네트워크 분리 사업

해킹 등 사이버 테러의 지능화 및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 망을 통해 내부 망에 침투하여 개인 컴퓨터 및 포털 서버의 자료를 해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외부 위협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 정보시스템 및 내부업무 망을 인터넷 망과 분리함으로써 질병관리본부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질병관리본부는 2005,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ISP)을 세우고,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우선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주된 목적은 질병관리본부 내부에 있는 질병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대민 서비스를 확대하며, 내부의 91개 개별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업무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총 3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2008년 3월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으며, 현재 2단계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총 91개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재조직하고 각 기능적으로 내부 업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다.

2009년 3단계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모든 내부 업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타 부서 시스템과도 연계 되어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한 질병정보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는 검역소

영남권의 하늘을 지키는 -국립김해검역소-



김해평야가 펼쳐진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국립김해검역소는 국립부산해항검역소 수영공항 파견근무(1963.9.1)로 발족하여 1976.7.31 국립부산검역소 김해공항지소로 승격한 후 1978.5.23 국립김해검역소로 신설되었다.

부산 · 경남권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발맞추어 2007.11.1 지금의 김해공항 국제선 신청사 이전과 함께 입국 게이트 증설(1개소→2개소), 항공기 운항 증가, 공항 운항시간 2시간 연장(1일 15시간 →17시간) 등 김해공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김복환 소장 외 14명의 직원은 『*전염병예방은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하나로 뭉쳐 해외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업무 및 예방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운영 · 활성화



해외여행자에게 알찬 질병정보 제공을 위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검역소, 민원인들과 함께 하는 검역소로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는 전담직원 2명이 배치되어 해외여행 전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을 위해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각종 질병예방정보 등을 제공하고, 질병정보검색용 컴퓨터 · 혈압계 · 체중계 · 홍보물 거치대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공항내 유관기관 직원들이 건강 확인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공항내 사랑방과 같은 유용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다각적인 전염병 예방홍보 활동



선박과는 달리 항공기는 일시에 많은 인원을 검역해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예방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2008 베이징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6~9월 중 매주 1회 어깨띠 · 조끼 ·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해외유입전염병 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홍보 도우미 · 직원 자녀와 함께 하는 캠페인 등 색다른 홍보도 실시하였다. 또한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안내 등 홍보를 위해 홍보용 모니터 · 전광판 · 배너 · 미니배너 등을 활용하고, 채변자에게는 홍보용 선물 제공, 유증상자 자진 신고 유도 등 홍보효과 극대화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노트 및 DVD를 배부하여 손씻기 홍보도 하였다.



이영순
국립김해검역소
giny73@mw.go.kr

❖ 유관기관 직원 등 대상 전염병예방교육



김해공항 내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검역소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홍보를 위한 전염병예방교육 실시와 아울러 발열의심자 · 설사환자를 확인할 경우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단기방학 · 여름방학기간 중 현장체험실시와 관련하여 검역소를 방문한 학생 · 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염병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 조류인플루엔자 ·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람사르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비상시 초동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해공항, 국가정보원, 공항경찰대, 한국공항공사 대테러반(EOD) 및 공항 소방대와 합동으로 *생물테러 발생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 해외유입 설사원인 병원체 및 매개모기 분포조사 등 연구사업 실시

검사실에서는 해외유입 병원체를 색출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정하는 검사기술을 갖춘 인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체 조사연구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중 설사 증상자를 대상으로 설사원인 병원균의 특성을 조사 · 분석 하는 등 질병관리본부 *장내세균팀과 연계하여 해외유입 설사원인 병원체 감시사업*을 실시하고, 비상검역기간에는 전염병 매개모기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제화물청사 및 수하물 운반지역의 모기를 채집하여 매개모기 분포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외유입 전염병매개체 조사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 함께 일하고 싶은 일터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인근 독거노인시설을 방문하여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좋은 직장 만들기,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생일 함께 하기, 대화의 시간 등으로 직원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돕고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함께 일하고 싶은 검역소로 탈바꿈하였다.

제21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행사

이윤재
에이즈 · 결핵관리팀
sahala007@cdc.go.kr

함께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고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회장:김준명)와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문옥륜)이 주관하는「제21회 세계 에이즈의 날」기념행사가 지난 12월 1일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을 비롯하여 에이즈 및 보건 관련 단체장과 사회 각계 주요인사가 참석 하였고 가수 이 수영씨가 '에이즈 홍보대사'로 위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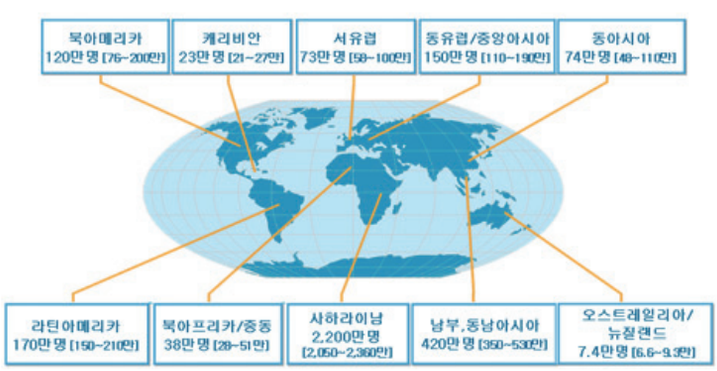


올해 21회째를 맞는 '세계 에이즈의 날' 주제와 표어는 **'리더쉽(Leadership)'**과 **'함께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하여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회 지도층은 물론 일반국민 모두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에이즈 예방은 물론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감염인에게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감염인의 삶과 애환을 담은 상황극(연극) 등 의미 있는 행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에이즈예방 홍보대사'로 가수 이 수영씨가 위촉되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해소를 위해 뜻 깊은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대사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감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33명(공무원 25명, 민간인 8명)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 2007년 HIV 감염인 또는 AIDS 환자 대륙별 현황 (단위 : 명)
(자료원 : UNAIDS(2008). 2008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국제행사

이훈상
예방접종관리팀
hsl810@cdc.go.kr

서태평양지역 B형간염관리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

서태평양지역에서 최초로 B형간염 관리 WHO인증을 계기로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서태평양지역 B형간염관리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가 지난 11월 24~25일에 열렸다.



이 회의에는 WHO 자문관 양 바오핑(Yang Baoping) 박사를 비롯해 WHO 서태평양지역 B형간염 자문단의 B형간염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들과 미국 CDC와 일본 NIID의 간염질환 책임자, 필리핀 · 베트남의 예방접종 책임자, 국제백신연구소 관계자 등 8개국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B형간염 관리 전략과 예방접종 성과가 소개**되었고, 특별히 **B형간염 항원 양성율의 큰 감소와 더불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B형간염에 의한 간암과 간경화 등으로 인한 높은 질병부담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이 지역에서의 B형간염 관리와 예방접종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B형간염 전문가 패널토의에는 WHO와 미국 CDC, 일본 NIID, 국제백신연구소등의 세계적인 B형간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이 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 종현 간염 · 폴리오바이러스팀장, 서경 교수 등이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 토의에서는 **'서태평양지역 B형간염 관리목표 도달을 위한 공동전략'** 및 **'가정 출산이 높은 국가에서의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출생 시 24시간 내 B형간염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향후 서태평양지역 뿐 아니라 WHO 전체 지역에서의 B형간염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서태평양지역에서의 B형간염 관리에 있어서는 모범 사례가 되는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B형간염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준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홍역퇴치와 함께 **B형간염의 성공적인 관리**를 통해 예방접종 질환 관리와 사업에서의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재확인했던 이번 회의는 앞으로 서태평양 지역 예방접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책임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미정
전염병관리팀
medethic@cdc.go.kr

주요행사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cob Disease, 이하 CJD) 및 변종CJD 국제자문회의 개최 *전염병관리팀*

국민들에게 CJD 및 변종CJD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반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선진 각국의 CJD감시 및 관리 담당자 그리고 연구 석학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얻는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선진 각 나라의 CJD 및 변종CJD 감시체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과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국내 변종CJD 환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및 효과적인 대응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2008. 12. 15(월) ~ 12. 16 (화), 그랜드힐튼호텔

〈문의 : 전염병관리팀 이 채진(380-2639)〉

❖ 공수병 감시와 예방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신경계바이러스팀*

공수병에 대한 이해증진과 공수병 발생위험지역과 위험예상지역의 교상환자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건소 담당자 및 관련기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워크숍이 열린다. 질병관리본부, 강원도, 경기도 보건소, 가축방역기관, 국방부 및 강원대, 서울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야생동물과 광견병', '공수병 예방 관리'에 대한 발표가 있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2008. 12. 03(수), 세종호텔(춘천)

〈문의 : 신경계바이러스팀 한 명국(380-2171)〉

❖ 질병관리본부 연구 성과 발표회 및 명예 연구원 초청 간담회 *연구지원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내부 직원 및 명예연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우수 연구 성과 발표가 있다. 지난 한 해동안에 있었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연구자 및 팀을 표창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는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 전직 원로인 명예연구원들을 초청하여 수행 연구결과에 대한 조언을 듣고 전 · 현직 직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2008. 12. 18(목), 질병관리본부 대강당,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래당

〈문의 : 연구지원팀 백 선경(380-2958)〉

❖ 2008년 전염병관리 컨퍼런스 개최 *전염병관리팀*

2008년 전염병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2009년도 사업방향을 수립하기위한 종합 심포지엄이 열린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질병관리본부 관계관, 16개 시 · 도 보건(위생 · 정책)과장 및 전염병관리담당, 253개 보건소장 및 전염병관리담당,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역학조사관, 유관 단체 전염병 관리요원 등이 참여하고, 전염병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이 있다.

▷ 행사일시 및 장소 : 2008. 12. 11(목) ~ 12. 12(금), 현대호텔(경주)

〈문의 : 전염병관리팀 김 주홍 (380-2636)〉

ISSN 1976-7579
9 771976 757007 12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발 행 일 : 2008. 12월(통권 제13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권준욱, 박미정, 박숙경, 배송미, 양은주, 이혜자, 최우영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